

기아차, 순천 아동시설 어린이 초청 여수 나들이



기아자동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장근)는 지난 21일 순천 지역 아동양육시설인 '순천SOS어린이마을' 어린이들을 초청, 여수로 가을 나들이를 떠났다.

광주전남본부 임직원들과 어린이 20명은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셀토스'와 기아차 대표 차종인 '더 K9', 'K7 프리미어', '모하비 더 마스터' 등 차량 10대에 나눠타고, 여수 유월드 루지테마파크를 찾았다. 어린이들은 루지와 놀이기구 체험, 공룡모형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광주전남본부는 후원금 120만원도 전달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보문학숙·보문고, 2학기 '동곡장학금' 전달



광주시 광산구 학교법인 보문학숙·보문고등학교(이사장 정영현, 교장 이승규)는 최근 2학기 교내 '동곡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장학금 전달식은 보문학숙 정영현 이사장, 이승규 교장, 박종현 행정실장, 학생 19명이 참석했다.

'동곡장학금'은 정직, 근검,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해나가는 보문학숙의 설립자 겸 초대 이사장인 고(故) 동곡 정형래 선생님이 사재 출현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매년 학업 및 생활교육에 모범이 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고른기회장학금 부문을 새로 신설했다.

이날 3학년 신채은 학생 외 18명에게 총 1000만 원 상당의 학업성적장학금과 고른기회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보문학숙·보문고는 매년 2500만 원의 장학금을 조성해 학생들의 경제적 지원과 지역 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해 힘을 쓰고 있다. 또한 2017년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돼 지역의 창의·융합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초당대, 故 김기운 박사 공덕비 제막식



초당대학교는 22일 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설립자 고(故) 김기운 박사 공덕비 제막식을 열었다. <초당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3 FAX 062-222-4938, 222-4918

화속

- ▲박재홍(영무건설 회장)·안정란씨 장남 장배근, 박희경·구영란씨의 장녀 혜영양=27일(금) 광주시 광산구 드레웨딩홀 4층 라비엔홀 062-222-0000.
- ▲박태용(해남농업기술센터)군, 강자람(강진대중교육행정사)양=28일(토) 오전 11시30분 해남군 해남읍 해리197 카멜리아 웨딩홀 1층 배아트리스홀 010-5631-9110.
- ▲박왕규(곡성축협조합장)·김정오씨 아들 중한군 공창규·서영숙씨 장녀 희영양=10월9일(수)오후1시 서울 아벨가모 반도, 피로연 25일(수)오전11시·오후3시 곡성축협마트2층.

일림

- ▲광주지하철예술무대 공연=30일(월)그리나눔공연예술단 오후2시,남광주역,

- 10월1일(화) 은마노래자랑 오후2시30분 상무역, 2일(수) 성역하모니예술단 오후2시 농성역, 4일(금) 사랑보따리 오후2시 남광주역.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원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는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

- 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치유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 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세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드론조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 모집=만 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드론조종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061-320-7024.

- 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영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한,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 ▲심영에서 별세, 영복·영구·중근·영근·영남·영애·영자씨 부친상, 기공순-김명순-김미정·최경화씨 시부상, 신종철-김영석·고호석씨 부부상=발인 24일(화) 오전 7시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 ▲심영에서 별세, 문영배-전영-지영-선영·소영·지원씨 모친상, 하성훈·류정호·정대진·김순제·임홍희씨 빙모상=발인 24일(화) 오전 9시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이주민들의 광주 이야기 볼륨을 높여주세요”

라디오 방송 '광주탐색대' DJ 홍콩 출신 클로이 씨

2013년 광주 여행서 좋은 기억 2017년 부모님 반대에도 이주 광주 살펴보며 느낀 내용 주제·취재·편집·제작 등 참여 월요일 밤 격주 '채널 우리누리'

“라디오를 통해 ‘광주정신’과 ‘광주의 정’을 알리고 싶습니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광주를 알리기 위해 직접 출연하는 ‘광주탐색대’가 지난 3일 첫방송을 시작했다. 홍콩 출신 클로이(여·25·한국명 진가이) 씨 등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월요일 밤 청취자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 ‘채널 우리누리’(FM 88.9MHz)는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민방송이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제작한 라디오를 통해 지역 사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이주민과 외국인들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탐색대는 ‘채널 우리누리’

에서 월요일 밤 11시 격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는 홍콩에서 앱(app)을 통해 한국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7년 광주로 건너와 살고 있다. 클로이씨는 “당시(23세) 나이도 어리고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었다”며 “부모님 반대도 있었지만 지난 2013년 광주의 경험을 잊지 못해 혼자서 무작정 찾았다”고 했다. 클로이씨는 짧은 시간 광주에 머물렀지만 아직도 좋은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여행 중에 광주에 또 올 것 같은 기분들이 들었다”며 “여행기간 내내 친했었던 광주 사람들을 잊지 못해 광주에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클로이씨는 5·18재단 GNMP(Global NGO Masters Degree Program)의 장학생으로 전남대 5·18연구소에서 NGO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클로이씨는 나츠호(일본), 파울리나(폴란드), 쇼페이(말레이시아), 피오나(베트남), 라나(우즈베키스탄) 씨 등과 함께 최근 가을을 맞아 개편된 ‘광주탐색대’의 진행자로 마이크를 잡았다.

‘광주탐색대’는 이주민들이 직접 광주 구석 구석을 살펴보고 그들이 느낀 내용으로 꾸며진다. 클로이씨는 광주탐색대의 아이디어, 주제, 취재, 게스트 초청, 녹음, 편집, 제작 등 직접 참여하고 있다. 그는 “게스트를 초청해 주제에 따라 외국인의 시각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방송”이라며 “주제는 진지할 수 있지만 최대한 청취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라디오는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라디오를 통해 인권에 관련된 내용이나 문화의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권 문제뿐 아니라 광주에서 가볼 만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클로이씨는 “성소수자 인권, 그리고 이주민 어려움 등 같은 문제를 광주의 상황과 같이 비교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로이씨는 “대학원 과정을 마칠 때까지 광주에서 생활할 생각이다”며 “살면 살수록 광주가 좋다. 계속 머물며 이주민 뿐 아니라 광주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송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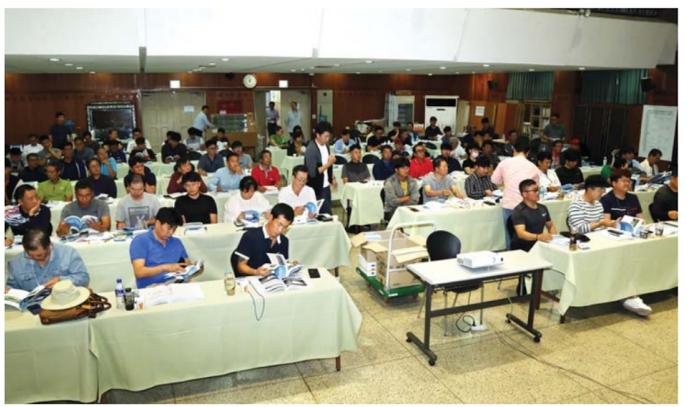


전남어촌특화센터 광주 귀어귀촌설명회

정부 정책·사업 정보 제공...27일 합평서 '귀어의 날' 행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지난 20일 광주 YWCA 대강당에서 귀어귀촌 설명회를 개최했다. 귀어귀촌 설명회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실시한 2019 귀어귀촌종합교육에 참석한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자리에서 센터는 2019년 달라진 전남도 내 각 시군의 귀어귀촌 정책과 사업은 물론, 전남도 내 우수 어촌계의 어촌계 가입 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

센터는 지난 8월 10일 목포에서 제2회 전남어촌 귀어귀촌엑스포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27일부터 1박2일간 합평 석두마을에서 '전남 귀어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연수 센터장은 "전남 어촌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이 어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김수을 교수 생애 첫 연구사업 선정 노인 병원 욕창 간호 교육 앱 개발

광주대학교간호학과 김수을(사진)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9년 생애 첫 연구사업'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 김 교수는 오는 2022년까지 2년 6개월간 7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노인 병원 간호사를 위한 욕창간호 교육 앱 개발'이다. 광주대 김수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노인병원 간호사의 욕창간호 역량을 향상시키고 대상자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마재운 전남소방본부장 취임 현장·소방과학·교육 전문가

마재운(55·사진) 제15대 전남소방본부장이 23일 취임한다. 마 신임본부장은 소방간부후보생으로 1990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광주 광산소방서장, 소방방재청 재난소방상황실장, 광주소방안전본부장, 경기도소방학교장, 전북소방본부장 등 중앙과 지방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일선 현장부터 전문적인 소방과학과 교육 분야까지 두루 섭렵한 전문가로 현장대응 위기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복수 광양소방서 소방장, 안전봉사상 상금 전액 기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최영철)는 지난 20일 광양소방서에 근무 중인 김복수(41·사진) 소방장으로부터 소방안전봉사상 상금 전액을 기부금으로 전달 받았다. 저소득층 아동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7년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 김복수 소방장은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주최한 '제 46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하여 받은 상금 전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김복수 소방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인연은 지난 2013년 화재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한 전남소방본부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동협력 캠페인을 통해 시작됐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경연이(가

명)의 사연을 딱히 여긴 김복수 소방장은 경연이를 비롯한 복지사각지대 놓여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해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7년째 나눔을 이어 오고 있다. 전달받은 후원금은 순천지역 아동양육시설인 성신원에 기부돼 경제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아동 4명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복수 소방장은 "평소 어린이를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꾸준히 동참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